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4차)

1.일 시	2016년 11월 8일(화) AM 10시00분	2.장 소	9동1층 회의실(전략기획단)	
3.참석자	나윤섭, 김익진, 이동수, 양용원, 김태환, 전영민, 라주희		4.불참자	양재득 김용걸
5.안 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			
<p style="text-align: center;">6.회의 내용</p> <p>위원장 :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심의사항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상정한 기획예산팀장 김익진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함.</p> <p>주무관 : 금일 회의안건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에 관한 심의로 사립학교법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1항~3항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 3의 1항에 의거하여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밝히다.</p> <p>주무관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학교의 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음. 사학연금 학교부담은 매년 연단위로 기간 및 금액을 정하여 신청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2016년 사학연금(재해보상) 및 퇴직연금(40%) 법인부담금의 학교법인 부담액을 계상하여 산정하였고 이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려고 함</p> <p>주무관 : 사학연금(재해보상) 법인부담금은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퇴직수당 40%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우리대학은 2012년부터 학교의 수익사업 확장으로 매년 법인부담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학교부담 승인액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을 설명함.</p> <p>2016년 예상되는 법인부담금은 약 869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부담금은 450백만원 그리고 학교부담금은 419백만원 이상으로 산정하여 교육부의 승인신청을 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다.</p> <p>김태환 위원 : 전년대비 법인부담금은 그대로 인데 학교부담금만 증가한 이유를 묻다.</p>				
<p>간서명 - 위원 : 나윤섭  위원 : 이동수  위원 : 김태환 </p>				

주무관 : 먼저 총 법정부담금이 증가한 사유로는 매년 급여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상승한 요인이 있으며, 퇴직수당은 일시적인 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올해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답변하다. 추가 적으로 현재 대학의 급여테이블이 역삼각형 형태로 고액 연봉자가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며 향후 5-10에 걸쳐 감소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이동수 위원 :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다.

주무관 : 관련 부담금에 대한 학교법인의 승인신청은 16년 12월로 예정되고 있으며 재정상태 평가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 검토 및 교육부 승인 결과 통보는 1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승인 이행 점검은 3~7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함.

양용원 위원 : 법인부담금이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타 대학의 사례는 어떤지 질의하다.

주무관 : 타 대학의 사례를 보면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인부담금이 전무한 대학도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대학은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통해 법인부담금을 매년 확충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같은 수준의 부담금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는 타 대학에 비하여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법인부담을 늘여가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수익이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수익창출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수익을 창출하여 법인부담금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위원장 :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하며 회의록에 나윤섭 부위원장, 양용원 위원, 김태환위원 3인을 간서명자로 할 것을 제안하다.

위원들 : 모두 이의 없이 동의하다.

위원장 : 금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심의한 것처럼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계획에 맞추어 승인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함

2016년 11월 8일

위원장 : 나윤섭

부위원장: 김용걸

위 원 : 김익진

위 원 : 양용원

위 원 : 이동수

위 원 : 양재득

위 원 : 김태환

위 원 : 전영만

위 원 : 라주희